



저개발국
EPR역량강화
프로그램
운영 및 방향



CONTENTS

I. 탈(脫)플라스틱 시대, 국제 동향

II. 한국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K-EP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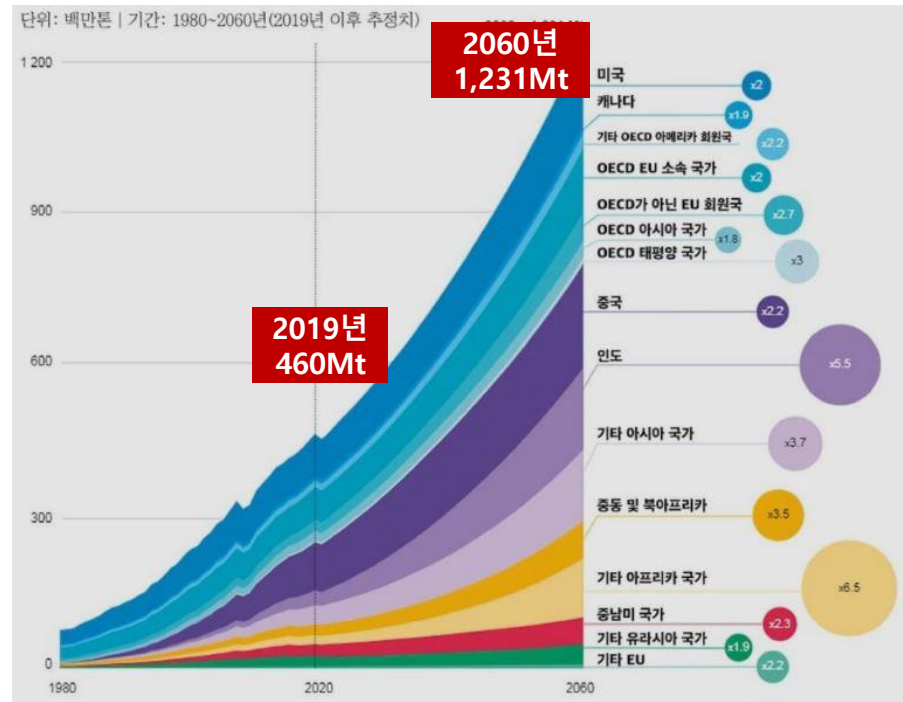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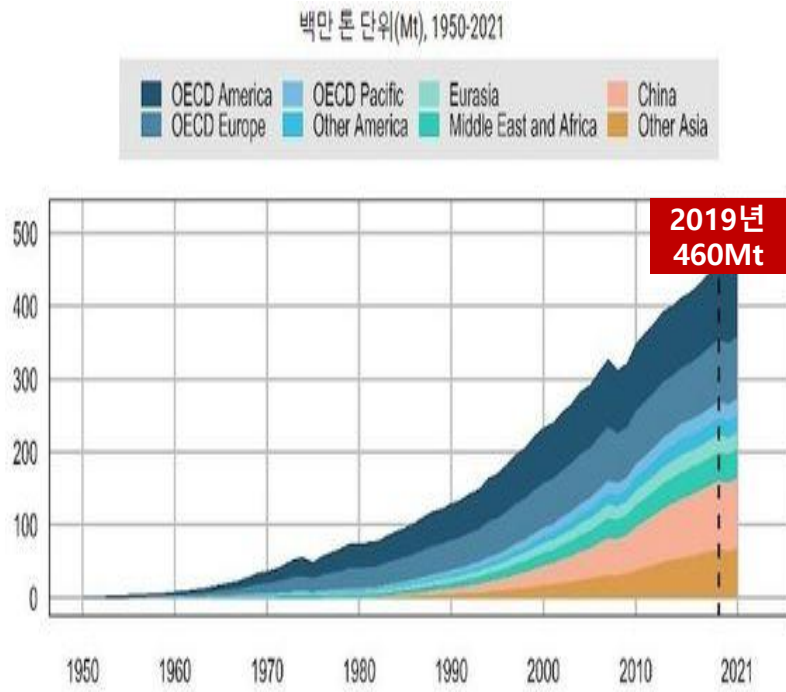
III. 저개발국 EPR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방향

1. EPR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
2. K-EPR 우수사례 개도국 전수
3. 국내 재활용 인프라의 수요국 맞춤형 지원



I. 탈(脫)플라스틱 시대, 국제 동향

전세계 플라스틱 발생량 **4억 6,000만톤** (2019년 기준)
 2000년 2억 3,400만 톤 대비 **약 2배 증가**



Database

2060년 12억 3,100만 톤으로 **약 3배 증가 전망**
 이 중 약 65%가 아시아·아프리카 신흥경제국에서 생성

바젤협약 규제 대상에 ‘플라스틱 폐기물’ 추가(‘21년 1월)

- ◆ 플라스틱 폐기물의 무역을 사전승인 통보 대상으로 지정하여 선진국이 개도국으로 수출하는 불법적인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한

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제정 추진

- ◆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 제정
 - 주요내용 : 플라스틱 생산 감축,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,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,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 등
 - UN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(INC) 개최(11월, 부산) 후 최종 합의안 마련 예상

국가 차원의 플라스틱 규제 시행

- ◆ 기후변화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 제한, 순환경제 논의 활성화, 폐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 고조
→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쳐 사용 규제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

<주요국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>

프랑스	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20% 감축 및 포장재의 최소 50% 이상 재사용 목표(~'25년)
영국	재생 플라스틱 사용량이 30% 미만인 경우 톤당 200파운드 세금 부과
독일	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비중 25% 미만인 페트병 판매 금지 ('25년~)
미국	-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령(뉴욕, 로스앤젤레스, 시애틀 등) - 비닐봉지 규제(캘리포니아, 하와이, 워싱턴 등 9개 주)
일본	- 일회용 플라스틱 25% 감축 - 플라스틱 포장재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 60% 달성 - 재활용 원료 사용 두배 확대 (~'30년)
EU	- 2024년까지 모든 회원국 생산자책임제도 도입 - 2025년 PET 음료수병 25% 재생 플라스틱 사용 (2030년부터 모든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30% 사용) - 플라스틱병 재활용 수거율 '25년 77% → '29년 90%



II. 한국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K-EP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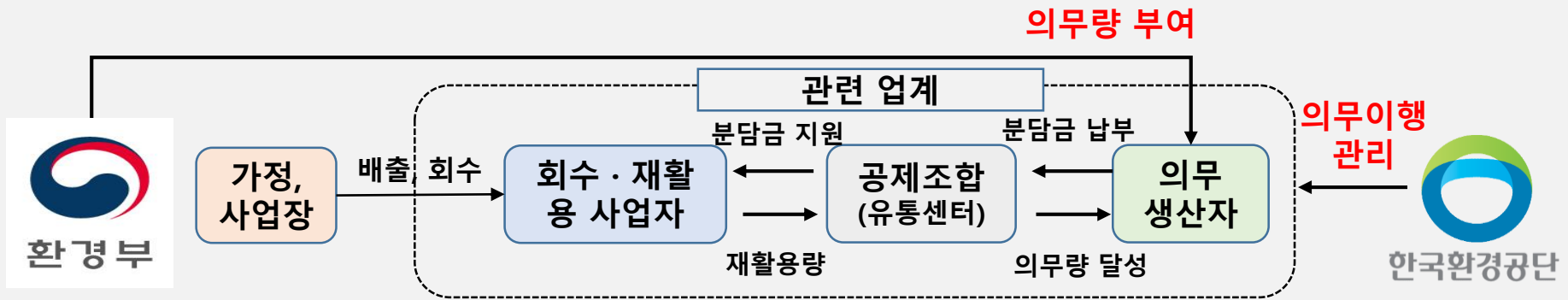
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(EPR)?

◆ (개요) 제품·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품·포장재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 부여

EPR 대상품목(28종)

- (포장재 4종) 종이팩, 금속캔, 유리병, 합성수지 재질
- (제품 24종) 전지, 타이어, 조명, 윤활유, 양식용 부자, 김발장, 곤포사일리지용 필름, 합성수지 제품군 등

◆ (공단 역할) 의무생산자들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도록 의무이행 관리(의무이행 계획·결과, 재활용실적 조사 등)



◆ (사업 성과) '03년~'22년 제도운영 20년 간 국가 재활용목표 지속 초과 달성

→ 재활용의무 이행률 평균 106% 달성(재활용의무량 29,515천톤, 재활용량 31,322천톤)

→ 경제적 편익 17조 4,122억원 창출(소각매립 대체 절감 및 재활용품 경제가치)

주요 국가별 EPR제도 비교(포장재 기준)

구 분	대상 품목	공제조합		의무량 미달성시 부과금 부과 여부
		단일/복수 체제	비영리/영리	
독일	재질의 제한 없이 모든 ‘포장재’	복수(10개)	영리	X
프랑스	유리, 플라스틱, 종이류 및 판지, 금속류, 목재류	단일 독점	비영리	X
영국	알루미늄, 유리, 금속, 폐지, 플라스틱 및 목재로 만든 포장 재 및 포장재 재료	복수(30여 개)	영리	X
벨기에	산업용/가정용 포장재 (유리, 종이, 플라스틱, 목재)	단일 독점	비영리	X
한국	금속캔, 유리병, 종이팩,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	단일 독점	비영리	O

※ 출처 : 생산자 부담 강화를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선방안 연구(‘19.6월)

한국 EPR제도 특징

1. 도전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재활용목표 설정

→ 그간 재활용실적, 국내 재활용기술 등 합리적 기준을 반영하여 적정한 재활용의무량 부여

2. 주체별 권한·역량을 반영한 적절한 역할 배분

→ 환경부(정책 수립), 공단(제도 운영), 공제조합(의무대행 및 분담금 관리), 회수·재활용업자(재활용 이행)

3. 제도 이행 의지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명확화

→ 재활용의무량 감경(재생원료로 신제품 생산 시), 재활용부과금 부과(재활용의무량 미달성 시)

4. IT 시스템 기반의 제도이행 체계 구현

→ EPR 대상품목의 “재활용의무량” 산출부터 “재활용실적” 달성여부 확인까지 IT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

5. 재활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보완정책 시행

→ 분리배출 표시제도,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,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 등



Ⅲ. 저개발국 EPR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방향

목 표

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EPR 역량강화 전문기관으로 도약

EPR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

K-EPR 우수사례 개도국 전수

국내 재활용 인프라의 수요국 맞춤형 지원

◆ 추진 실적

- (세계은행) 주최 행사 지원 등 파트너 구축
- (베트남) K-EPR 전수 MOU 체결

◆ 향후 계획

- 타개도국 MOU 체결 등 협력국가범위 확대

◆ 추진 실적

- (필리핀) EPR Study Tour 프로그램 지원
- (베트남) EPR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

◆ 향후 계획

- (베트남) K-EPR 전수 본격화(품목확대 등)

◆ 추진 실적

- (인도네시아) 부적정 폐기물 배출문제 현지 컨설팅

◆ 향후 계획

- (인도네시아) 국내 시설·인력 진출 모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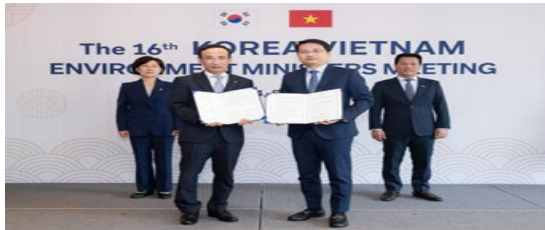
① EPR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

추진 방향

저개발국 EPR 역량 강화를 위하여 **국제기구 및 개도국 정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**

추진 실적

- (세계은행) 주최 행사 지원 등 파트너십 구축('23년~)
 - 아시아·아프리카 8개국 워크숍 「플라스틱 관리 혁신과 순환경제로의 길」 참석('23.10월)
 - 필리핀 EPR Study Tour 지원('24.4월) 등
- (베트남 정부) 한국환경공단-베트남 국가 EPR사무국 간 K-EPR 전수 MOU 체결('24.7월)



향후 계획

- K-EPR 전수를 희망하는 개도국들과의 추가 **MOU 체결 등 협력범위 지속 확대**

② K-EPR 우수사례 개도국 전수

추진 방향

저개발국 EPR 역량 강화를 위하여 **한국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개도국에 전수**

추진 실적

- (필리핀 정부) EPR Study Tour 프로그램 지원('24.4월)

→ 한국 EPR 체계 및 성과, 우수사례, IT 시스템 관리 등 전수

※ (참석자) 필리핀 공무원 및 민간기업 관계자, 세계은행(주관) 등 19인



- (베트남 정부) EPR제도 운영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('24.9월)

→ 한국 EPR 체계 및 성과, 우수사례 등 전수

※ (참석자) 베트남 공무원 및 민간기업 관계자 등 6인



향후 계획

- K-EPR 베트남 전수 본격화

→ 베트남 EPR 대상품목 확대를 위한 노하우 전수, 협력범위 확대 등

③ 국내 재활용 인프라의 수요국 맞춤형 지원

추진 방향

저개발국 EPR 역량 강화 및 현지 문제 해소를 위하여 **국내 재활용 인프라의 개도국 진출**

추진 실적

- (인도네시아 정부) 폐기물 부적정 배출문제 현지 컨설팅('24.8월)

→ 바둥 지역 폐기물 성상·종류 분석 및 적정 처리방법 컨설팅, 한국 폐기물 관리실태 설명 등



향후 계획

- 인도네시아 폐기물 부적정 배출문제 현지 컨설팅 결과 간담회 개최('24.10월 예정)

→ EPR재활용사업자와 함께 현지 문제 해소를 위한 국내 시설·장비·인력 진출방안 모색

- 국내 민간 재활용 인프라의 글로벌 시장 진출방안을 종합적 모색

THANK YOU
감사합니다.